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이 고졸자를 신입 행원으로 뽑거나 채용 계획을 밝힌 가운데 20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가 은행권 취업에 대비해 강의실에서 '올센터 근무 실습'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女商의 부활

금융권 고졸 행원 채용 바람에 제2 전성기

광주·송원·전남여상 등 졸업반 교실 활기

“상고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은행에 취직할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최근 광주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고졸자를 신입 행원으로 뽑거나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지역 여자상업고등학교들이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 학교 측은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비해 어렵게 열린 ‘은행 문’ 통과 학생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고, 학생들은 변화의 바람을 타고 은행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금융비즈니스과와 콜마케팅과 등 4개과 1~3학년 35명은 숨이 턱턱 막히는 땀별 쬐는 벌 것 아니라는 열정으로 ‘금융투자상담사’ 자격증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오는 9월 초 시험을 위해 지난주부터 준비에 돌입했다.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 후 학교에 나와 공부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밝고 진지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단 한명의 학생도 졸거나 판첩을 피우지 않았다. 최근 국내 상당수

은행들이 우수 고졸자를 행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뒤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변화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학기 초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무조건 진학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중 절반 정도의 학생이 ‘취업’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3학년 강수남(19·컴퓨터디자인과) 양은 “학교를 졸업한 뒤 곧장 행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며 “우선 관련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딴 뒤 실무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원 가운데 상당수는 상고 등 고졸 출신이 채용됐으나 이후 은행권의 고졸자 채용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올 상반기 신한은행

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상당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채용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고졸자 채용 바람에 맞춰 송원여상 등 광주지역 여자상업고등학교들은 땀뻑뻑한 대학고 진학이 아닌 취업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과 전문 강좌를 개설했고, 광주여상과 전남여상 역시 방학기간을 이용해 자격증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박종의 송원여상 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불기 시작한 고졸자 채용 열풍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학교 측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금융인재 산실서 쇠락길 걷다 다시 주목

■ 商高의 변천사 교명 바꾼 나주여고 내년 '상고'로 회귀

금융인재의 산실이자 김대중(옛 목포상고)·노무현(옛 부산상고)·이명박 대통령(옛 포항 동지상고)을 배출했음에도 쇠락의 길을 걸었던 상고가 부활하고 있다.

IT시대에 맞춘 교육시스템으로 발빠르게 전환,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채용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에 맞춰 지난 2004년 나주여고로 전환했던 나주여상은 내년 다시 나주상고로 유턴키로 했다.

20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인문계고로 전환하거나 특성화고로 명칭을 바꾼 학교를 제외하고 전통 상업계고 교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목포여상, 광주여상은 지난 2010년 취업률

교명	연혁(계고·교명변경)	주요학과
광주여상	광주상업중(1945년) 광주여상(1958년) 졸업생 35,068명	디자인·콜 마케팅
전남여상	전남여상(1968년) 졸업생 21,320명	디지털경영·간호과
목포여상	목포여상(1973년) 졸업생 22,971명	회계정보·세무행정
북평상고	북평중고(1969년) 북평상고(1979년) 졸업생 4,669명	사무자동화·정보처리
별교제일고	별교상고(1952년) 별교제일고(2003년) 졸업생 18,468명	유통경영·사무자동화
법성고	법성수산중(1945년) 법성상고(1951년) 법성고 졸업생 9,356명	비즈니스·미디어정보

해남 북평상고, 광주여상, 전남여상, 송원여상 등 대부분 여학교다.

1980년대 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50여개를 해아렸던 것에 비하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기업의 대졸 선호 현상심화로 신입생이 줄면서 광주와 전남의 전통명문인 광주상고는 동성고로, 목포상고는 전남제일고등학교로 각각 2001년 인문계고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우직하게 상고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학교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여상은 지난 2010년 취업률 35.18%였으나 올해 45.67%로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 20%를 크게 웃돌았다.

상고의 저력을 주목한 광주은행은 지난해 1월 지역 상고 출신 행원 4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데 이어 올 하반기와 내년엔 10명 가량을 뽑을 방침이다. 지역 상고가 부활한 것은 대학에 버금가는 IT·정보화 인재양성에 힘을 쏟은 결과다.

광주여상 이상선 교장은 “기업이 요구하는 산학맞춤형 인재양성에 총력을 쏟은 탓에 금융권에서 다시 상고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여수박람회장 타워크레인 파업

19대중 13대 기사 작업 중단...준비 차질 우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둔 가운데 박람회장 조성 공사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장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 중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조원인 기사들이 이날 오전 총파업에 돌입했다.

박람회 공사장 내 타워크레인은 19대로, 엑스포타운 건설을 위해 12대가 투입되고 있으며 주재관 2대, 국제관 2대, VIP 호텔 1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13대의 기사가 노조원으로 이들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앙 타워크레인노조의 지침에 따라 이날 오전 파업에 들어가 작업을 중단했다.

이런 파업으로 늦어도 9월 말~10월 초까지 박람회장 내 주요 전시관

의 철골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조직 위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엑스포타운 건설에 투입되는 12대의 타워크레인 중 파업 참여 노조원(7명)을 제외하면 대체기사와 비노조원 8명만 작업에 참여하게 돼 부족한 인원으로 인한 일시 작업 중단이나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이들 노조원 13명은 지난달 7

일부터 서울 중앙노조의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수시로 부분 파업을 벌여왔으며 이때마다 대체기사를 투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직원과 시공사 측이 비노조원들과 대체기사들을 투입, 조업을 나서고 있어 심각한 공사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농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원만한 노사 협의를 통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재단법인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11-1호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원장 채용공고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은 경륜과 지도력을 갖추고 혁신적인 경영이념으로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는 원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재단법인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장

-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원장(1명)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가. 재단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사업에 대해 최종 책임
나. 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지원, 구조조도와 및 투자유치 촉진
다. 지역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사업 및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
- 응모자격
-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정관 제11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풍부한 조직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하고 전략적 사고능력이 있는 분
나. 시정방침을 잘 이해하고 지역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할 수 있는 분
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이 있는 분

【 재단 정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가. 국내외의 산업기술과 경제에 대한 상당한 소양을 갖추어야 함.
나. 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지속적인 사업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중앙 및 지역 유관기관, 기업과의 원활한 관계 정립,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 임용계약 및 보수
가. 계약적으로 3년 계약(연봉은 성과평가 후 1년 단위 계약)
나.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8. 4 (목) ~ 2011. 8. 5 (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502-702)광주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과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2)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3) 관련 자격증 각 1부(소지자에 한함)
※ 서식은 www.gwangju.go.kr(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는 개별통지(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면접심사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 10분 이내 발표
○ 전문자격 능력, 면접에서,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 관리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결정 즉시(개별통지)
-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공모결과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임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과(062-613-3840, 조동현사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